

행복한 책임기

찰스 만의 '인디언' (오래된 미래 편)

사라진 문명은 필립의 넘칠식 물 아래 묻힌 석상 같은 것이다. 혹은 동굴 바닥에 묻힌 패총 같은 것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문명이 사라졌다'라는 말은 '문명을 이룬 민족이 사라졌다'라고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감쪽같이 사라진다 해도 문명은 해독 가능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연은 인간의 작은 흔적도 함부로 지우지 않는다.

인디언은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진 민족이다. 연기처럼 사라진 민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종족이었는가를 아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정복자들의 입장에 유리한 사람자 수지만 있을 뿐이다.

흥족제 이후 아메리카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인디언들



은 문명이 찬란하게 피어났고 임카와 마야 문명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여러 곳에 널려 있었다. 이들 나라는 같은 시대의 유럽보다 인구가 많았고 문명도 훨씬 발전된 것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냥 생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명을 이룩해내고 조직화된 농경사회를 만들어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초원 지대를 유지하기 위해 불을 놓아 숲의 침범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디언들은 그들의 편리에 맞게 환경을 바꾸면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한 문명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 인디언의 지혜

이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 동등성도 똑같이 주장했다.

이 "인디언들 각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주인이며, 인간은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서로 간의 차별이나 우월성은 없다고 그들은 믿는다."라는 프랑수아 탐험가 루이 아르망 드 롬바르세의 말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 '인디언'의 저자 찰스 만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전통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디언 문화가 미국의 민주적 사상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땅 속에 묻힌 문명의 발견으로 인해 이런 인디언의 역사가 다시 부활되고 있는 것이다.

재배되는 곡물의 5분의 3을 개발했고 천 년도 안 되는 기간에 자체 문자, 천문학, 그리고 0을 포함한 수학을 만들어 냈다. 이런 인디언들, 민주적으로 격식 처리하지 않는 인디언들의 태도는 유럽인들을 당황하고 놀라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찰스 만은 이렇게 독자에게 묻는다.

"1491년 호데노소니 연맹의 인디언을 만났다고 상상해보라. 문신과 좌우비대칭의 뺨뺨머리, 현란한 의상을 한 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당신의 선조보다도 현재의 당신과 훨씬 비슷하다는 걸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윌킨의 말에서 역사는 "우리는 언제까지 아메리카를 '신대륙'이라고 부를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렇듯 침략자는 밀립의 덩굴식물처럼 상대국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왜곡시켜 진실처럼 만든다. 그러나 진실은 석상이나 패총처럼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올해는 광복 67주년이다.

오래 전 아메리카 대륙은 말

이현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이름값 못하는 지역 유명 화가 전시관들

오지호 기념관, 기획전시 올해 단 한건도 없어
천경자 전시실, 고흥군 작품 관리 소홀 폐쇄 결정
김환기 미술관, 예산부족으로 착공조차 못해



화순군 동북면 오지호 화백 기념관 전경. 기념관만 조성해놓았을 뿐 자치단체의 미흡한 문화 마인드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공간으로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전남 출신 유명 화가의 이름을 내건 전시관들이 겹겹으로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문화 마인드 부재에다 열악한 재정 형편까지 겹치면서 지역의 소중한 문화 유산을 알리는 문화공간과 교육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순군 동북면에 위치한 오지호(1905~1982) 화백 기념관의 경우 올해 단 한 건의 기획 전시를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12억원을 들여 조성한 뒤 지금까지 열린 기획전도 손가락에 꼽는다. 오 화백의 작품(복사본 50점) 51점과 아들인 승우·승운씨의 작품(25점), 서세옥·이대길·박성광씨 등의 기증작품 50여 점이 소장돼 있지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명품' 전시를 기획할 학예연구사 등 전문가가 없는 형편이다.

주변에 조성된 오 화백 생가와 연계, 오 화백의 삶과 예술 정신을 소개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전시작품을 소개할 해설가조차 없다.

그러나 기념관이 올해 5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화순 출신 서양 화가 전시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반영되지 못해 포기해야 했다.

전시관 내부 도색 작업 등 환경 정비조차 업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품 구입비를 마련, 한 점에 불과한 진품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소장품을 늘려 기념관의 위상을 높여겠다는 포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럼에도 하루 평균 30여명(12일 현재 관람객 7382명)이 찾고 있다는 게 대단할 정도다.

화순군은 또 기념관 인근에 오 화백 생가를 복원, 조성해놓고도 덩그러니 건물 복원만 했을 뿐 다양한 컨텐츠를 채워넣고 문화 유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고흥군의 문화 감각 부재는 더하다. 지난 2007년 11월 천경자 전시실을 개관한 뒤 천 화백이 기증한 드로잉(55점)과 관화(11점) 등 66점의 작품을 전시해오다 작품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최근 작품을 돌려

주고 끝내 폐쇄기로 했다.

홍보를 위해 근대 한국화의 대표적 인 여성화가이자 수필가인 천 화백의 작품을 보유한 전시관이라는 '하드웨어'에만 집착했을 뿐 지역의 소중한 문화 유산을 제대로 보존하는데 소홀히 하면서 학예연구사를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문화 마인드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예견된 결과라는 게 문화계에서 나오는 시각이다.

신안군이 추진중인 '김환기 미술관'도 예산 부족으로 착공조차 못하

는 등 겹겹으로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초 김 화백의 탄생 100주년인 2013년 2월에 맞춰 완공하려던 구상은 물거품이 된 지 오래다. 79억원 수준이던 사업비는 부지 변경 절차 등에 따라 130억원으로 불어났다. 또 전체 사업비 중 군비로 107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건립이 현실화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김 화백의 유화 및 드로잉작품(12점), 관화(12점), 유품(100점), 김환

기 미술제 출품작(228점) 등 신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457점의 작품이 자칫 관람객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업적으로 유명 화가 전시관·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게 아닌,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리는 주체라는 자세를 갖고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빛고를 천원의 행복 'Summer Time'

20일 서구문화센터

'빛고를 천원의 행복' 8월 행사가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Summer Time' 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무대의 출연진은 소프라노 최순아, 메조 소프라노 장주은, 알토 가현주로 구성된 성악그룹 '블루투스'. 연주레퍼토리는 'Sing Sing Sing', 'Eres tu', 'Tonight', '얼굴', '산촌', '그리움만 가득히', 'Dancing queen', 영화 '미녀는 괴로워' 중 'Beautiful girl'로 재즈·가곡·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또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아시안실버윈드오케스트라가 출연, '장미', '야뻘의 청춘', '시월의 어느 멋진날에' 등을 들려준다. www.gjasia.org.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관객과 함께 '탈춤 한마당'

18일 토요일상설무대, 전통연희놀이연구소 초청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8일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일상설무대에 전통연희놀이연구소(대표 정재일)를 초청, 강령탈춤(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을 시연하고 관객과 함께 체험하는 '탈춤 한마당'무대를 꾸민다.

'강령탈춤'은 황해도 강령지방에서 5월 단오놀이로 행하여 전승돼온 민속놀이로, 월남한 연희자들에 의해 현재까지 계승돼 왔다. 주로 양반 계급에 대한 풍자와 서민들의 생활을 익살스럽게 그린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일곱 마당으로 구성된다.

이날 무대는 전체 일곱 마당 중 탈춤이춤을 시작으로 상좌춤, 사



자춤, 노승·취발이춤 순으로 총 네 마당을 꾸밀 예정이다.

장명아의 사회로 노승역에 김홍모, 취발이 역에 정재일, 소무역에 장명아, 악사에 이재욱, 장구에 이일규, 징에 오유미, 북에 조영석이 출연한다. 문의 062-232-150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관악' 여름밤 특별한 콘서트

TIMF 앙상블, 내일 5·18기념문화관

관악의 아름다운 선율이 광주의 여름 밤을 수놓는다. 17일 오후 7시 광주서구문화관 대동홀에서 'Ensemble TIMF Academy Concert'가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TIMF앙상블 아카데미 in 광주'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관악앙상블'부문 젊은 음악인 26명도 함께한다. 이용근씨의 지휘로 윤이상의 '목관 5중주'를 위한 축제 무곡'과 바하의 '금관 5중주'를 위한 토카타와 푸가' 등 다양한 곡이 연주된다.

2001년 창단한 TIMF앙상블은 통영국제음악제의 홍보대사로



TIMF앙상블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국내외에서 교육과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TIMF아카데미 주관하고 5·18기념재단과 (재)통영국제음악제가 후원한다. 전석 초대, 문의 062-360-053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saton (국제보청기) celebrating 30 years with a 30% OFF SALE. Includes logos for USA, Germany, Canada, and Denmark,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Bukgodang Hanakbap (복고당 한약밥) featuring ginseng (홍삼) products. Includes a list of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and a special offer for 60-year-old ginseng (60포) for 150,000 won.